

# 특수화학, M&A 통해 성장한다!

## 미국, 제조업 부활로 특수화학 호조 ... 대형 인수·분사 줄이어

미국 및 유럽 화학기업들은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치적 문제, 북미의 이상 한파에도 2014년 영업실적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대규모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이 메이저에서 중견 특수화학기업으로 파급됨과 동시에 셰일(Shale) 혁명의 영향이 기초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석유·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설비를 아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공동화가 발생했으나 몇 년 전부터 반전하기 시작해 자동차, 주택 관련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특수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IHS에 따르면, 신흥국인 중국, 인디아는 임금이 멕시코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북미는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연료코스트가 하락하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생산거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펀드 등이 특수화학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00개 이상의 소비자 브랜드를 확보해 10년 만에 매출액을 80억달러 수준으로 키운 Jarden의 Martin Franklin 회장은 적극적 M&A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특수화학기업 MacDermid를 18억달러에 인수해 Platform Specialty Products(PSP)를 설립했다.

PSP는 2014년 초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한 후 4월 초 Chemtura의 농약 사업을 1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형 특수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MacDermid는 매출액이 7억4000만 달러 수준으로 도금, 표면코팅, 프린트 배선판용 화학제품, 감광성 수지 등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이 4억5000만달러 수준인 Chemtura의 농약 사업을 인수한데 이어 유전 서비스, 접착제, 촉매, 도료, 수처리 등 성장시장에서 계속 M&A를 추진하고 있다.

Chemtura는 난연제, 브롬화학, 석유첨가제, 우레탄(Urethane), 유기금속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해 매출액 18억달러 수준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Goldman Sachs의 펀드부문과 Koch Industries는 2014년 4월 글로벌 인쇄잉크 메이저인 Flint Group을 영국 CVC Capital로부터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Flint Group은 2013년 매출액이 22억유로로 세계 40개국 137곳에 66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인수로 평가되고 있다.

CVC Capital은 2004년 BASF의 인쇄잉크 사업과 AN Printing Ink를 인수한데 이어 2005년 Flint Ink를 인수해 Flint Group으로 통합했다.

Koch Industries는 미국 최대의 비공개 복합 화학기업으로 석유정제·석유화학기업 Flint Hills, 합성섬유 생산기업 Invista, 제지 메이저 Georgia Pacific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가운데 특수화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lint Group을 인수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화학 메이저들이 주주의 압력에 따라 사업을 분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shland는 2014년 3월 수처리 사업을 펀드기업인 Clayton Dublier & Rice에게 약 18억달러를 받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Ashland는 2000년대 들어 석유정제에서 특수화학기업으로 변모했다.

수처리는 Degussa의 수처리 사업 및 Hercules를 인수함에 따라 매출액 17억달러에 종업원이 3000명에 달하는 핵심 사업으로 육성했으나 최근 수익률이 저하된 영향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ISP를 인수해 강화한 퍼스널케어 등 특수성분, 기능소재, 모터오일 및 윤활유 교환 서비스를 포함하는 소비자 부문으로 사업범위를 축소하고 인원을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FMC는 과산화수소 사업을 펀드기업 One Equity에게 매각한데 이어 3월 초 소다회 및 리튬 사업을 통합한 FMC Minerals을 분사한다고 발표했다.

분사한 후 FMC Minerals은 기술집약형 농약 및 건강·영양 사업부문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2014년 매출액이 약 33억5000만달러, 이익이 8억1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MC는 2015년 초까지 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주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DuPont은 기능성 화학제품, Dow Chemical은 CA(Chlor-Alkali) 사업을 분리할 예정이어서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